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12일 제6대의회 개회

유군성 의장...“주민과 약속한 일 힘모아 이뤄낼 것” 강조

강북구의회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의원단을 선출하고난 뒤 제6대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유군성 의장과 김용욱 부의장 재선을 갖추고 열린 개원식에는 박경수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이 참석할 가운데 진행됐는데 유군성 의장은 개회를 통해 “주민과 약속한 일들을 모든 의원들이 힘모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91년 초대의회가 시작된 이후 5대의회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온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원 모두가 고봉받는 서민을 위해 시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약속한 일들을 모든 의원들이 힘모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의회와 구청이 상호협력하고 발전적 견제와 효율적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구민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또 “의회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하인사말에 나선 박경수 구청장은 계획을 축하하고 “모든 구민은



박경수 구청장이 제6대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의회의 활동에 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구의회는 이같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모아 강북구 발전을 이뤄나가며 구청과 의회가 함께 지방자치

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해충방제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의 국장급 간부들을 의원들에게 소개하며 의원들을 축하했고 최선 의원과 김동

식 의원은 구청장의 의회 축사가 높아진 경을 들어 구청장과 의장의 사과를 요구해 구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했다.

강북구의회 제6대 전반기 원구성 마쳐

3개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배정...앞으로 2년간 활동나서

강북구의회가 제6대 전반기 2년을 활동하게 될 원구성을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열두개 월 임시회에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게 된다.

지난 12일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13일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을 발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 완료했다.

●행정위원회-이영심 위원장, 이홍순 부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은영 이영심 최선 김용욱 이홍순 김도연 의원



이영심 위원장
이영심의원이 소속해 김용욱 부의장이 유일한 남성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재선의 의원인 이영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최선인 이홍순 의원이 부위원장이 됐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의회 6명의 여성의원 중 5명의 여성의원들이 소속해 김용욱 부의장이 유일한 남성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영심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 의원단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홍순 부위원장은 “초선의 원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으나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열심과 배워 화합하고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원회-박성열 위원장, 구본승 부위원장



박성열 위원장
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동식 이백규 구본승 강남연 박성열 이성희 박문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재선의 의원인 박성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최선인 구본승 의원이 부위원장이 됐다.

해 “구민을 위하고 건설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본승 부위원장은 “건설위원회는 강북구민들의 삶의 현장, 복지의 현장, 골목골목 현장에서 바로 뛰는 활동으로 강북구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활동으로 만들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최선 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



최선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구본승 김도연 박문수 이성희 이홍순 최선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재선의의원인 최선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최선인 김도연 의원이 부위원장이 됐다. 최선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화합하고 주민들로부터 멋진 발자국을 남기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는 7월 20일부터 8월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제6대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최 선	위원장	이영심	위원장	박성열
부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	이홍순	부위원장	구본승
위원	구본승	위원	이은영	위원	김동식
위원	박문수	위원	최 선	위원	이백규
위원	이성희	위원	김용욱	위원	강남연
위원	이홍순	위원	김도연	위원	이성희
				위원	박문수

강북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개회

박겸수 강북구청장 비전 반영된 정책 심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가 6대 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후 임주일인인 20일 제14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집행부 각 부서별로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중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비전에 따라 정보화 지원과 일자리 정책추진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보화지원과'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신설되고, 일부부서의 명칭 변경과 업무 통폐합 등 업무적 연관성과 효율적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또한 출산장려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할 다중이 안심보험 가



▲지난 12일 유근성 의장체제가 출범한 후 6대 강북구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지 주목되고 있다.

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를 인도 많고 여성의원도 많아 어떤 모습으로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nal.net>

강북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가 의회 원구성을 마무리 한 이후 제6대 의원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제14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7월 20일(화)부터 27일(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제14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각 부서에 대한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중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안건을 살펴보면, 새로운 구청장의 비전에 맞추어 정보화 지원과 일자리 정책추진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보화지원과'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신설되고 일부부서의 명칭 변경과 업무 통폐합 등 업무적 연관성과 효율적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또한 출산장려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할 다중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강북구의회 의장 유근성

부의장 김용욱 선출



강북구의회는 12일(월) 오전 10시에 제6대 강북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제142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유근성 의원을, 부의장에 김용욱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의장 당선자 유근성 의원은 제34대 강북구위원을 지내고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된 3선의원이며, 부의장으로는 선출된 김용욱 의원은 제5대 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으로 제5대 의원 당시에는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연으로 이어짐>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2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가 제6대 원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제14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제143회 임시회에서는 진부 각 부서에 대한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동어안심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안건을 살펴보면, 새로운 구청장의 비전에 맞추어 정보화지원과 일자리 정책추진 등 소외계층의 정보와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보화지원과'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신설되고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업무 통폐합 등 업무직 연계관과 효율적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시민대상

강북구 임시회 오늘 개최 행정기구 설치개정안등 처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가 20~27일까지 8일간 제6대 원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제14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한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동어안심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안건을 살펴보면, '정보화지원과'와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업무 통폐합 등이다. 또한 출산장려와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기여할 '다동어안심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진홍준 기자 jh@sinbitto.co.kr



강북구의회가 제6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유군성 의원과 부의장에 김용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사진은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유군성 의장.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김용욱 부의장 선출

13일엔 이영심·박성열·최선 위원장 선출하고 원구성 마쳐

강북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유군성 의원(한나라당)과 부의장에 김용욱 의원(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일 제142회 임시회를 열고 제6대 의회 전반기 2선을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나서 이영심 의원을 13일엔 3개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서 행정위원장에 이영심 의원(민주당), 건설위원장에 박성열 의원(한나라당),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에 최선 의원(진보당)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의장선거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총14표중 9표를 차지한 한나라당의 유군성 의원이 5표에 그친 민주당 박준수 의원을 제치고 전반기 2선을 이끌어 갈 의장에 당선됐다.

유군성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의회가 잘 화합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는 의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용욱 의원이 9표를 얻어

총14표중 9표 차지해 당선 "많은 발전 이루는 의회로"



유군성 의장



김용욱 부의장

당선된 뒤 "화합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군성 의장은 제3,4대 강북구위원을 지내고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이며, 김용욱 부의장은 제6대 의회에 이은 2선 의원으로 제6대 의원 당시에는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있다.

13일 열린 3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행정위원장에 이영심 의원(민주당)이 9표를 얻어 선출됐고 건설위원장은 역시 9표를 얻은 박성열 의원(한나라당), 운영위원장은 최선 의원(진보당)이 10표를 얻어 각각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영심 행정위원장은 "의회와 의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고, 박성열 건설위원장은 "구민을 위하고 건설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선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화합하고 주민들로부터 멋진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북구새마을부녀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일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감자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박경수